

공동체 소식



연중 제15주일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주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정한조, 정지연 막달레나의 가정을 위하여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7월의 성인

- 7/4: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
7/5: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7/6: 성녀 마리아 고레티 동정 순교자
7/11: 성 베네딕도 아빠스
7/15: 서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7/22: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7/25: 성 야고보 사도
7/26: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7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쉽니다.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본당에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지향

빛이신 주님,
아직 세상 곳곳에는 많은 이유로
당신의 자비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당신 사랑의 빛으로 그들의 마음과 어려움을 밝게 비춰주시어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Values: 41, 212, 180, 68.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시종 복사, 향 복사. Rows for 금주 and 차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금주 and 차주.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Names listed for each.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Names listed for each.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7/3, 59명, 230불, 850불. Includes a note about members.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부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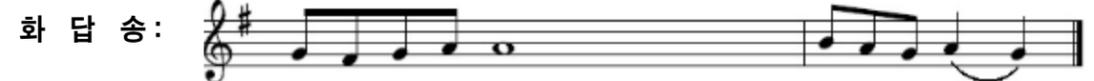


오늘 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불쌍한 이웃을 도우시다.

그림묵상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마태 10,7-15)

제 1 독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30,10-14
<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어,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



- 화답송: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돌우어라.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돌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5-20
<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5-37
<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의 길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 중, 바쁘다는 핑계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나친 사제나 레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압권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2.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혈로 대부분 아시아 식민지 사람들이었는데, 사마리아 함락 뒤 바빌론으로 유배간 유대인 대신 사마리아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은 인정했지만 예언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신전까지 지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눈에 그들은 배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의 본보기로 택하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 여

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이나 이방인에게 한결같이 너그러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진실하고 실천적인 사랑이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결정적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랑의 길에 있어서 누가 저의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 학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거짓 복음이며,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적 사랑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자기중심적 사랑이냐, 타인 지향의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자기중심적 관점입니까? 아니면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타인 지향의 관점입니까? 또한 우리 시대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홍인식 마티아 신부 | 일원동성당 주임 -



###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엇이래 대답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14,22-31

예수님은 제자들과 겿세마니 동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여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14,32-36

스승을 배신한 제자,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다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미리 약속을 한 대로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수십 명이 되는 장정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싸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14,43-50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포 중에서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난과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몸을 피했고,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은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력한 존재이기에 더욱 더 회개가 필요합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한 사람의 겸손이 이 세상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세례자 요한의 이 고백으로 구원을 찾던 이들이 바른 길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이 세상을 밝혔습니다. 이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요?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루카 3:15)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